

동남아시아 전통주거 형태와 문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orm and Culture of Traditional House in Southeast Asia

주서령*
Ju, Seo-Ryeong

김민경**
Kim, Min-Kyoung

ABSTRACT

Traditional pile-buildings in Southeast Asia has high utility. Their floors are lifted above the ground to stave off humidity in the house, increase the amenity and hygienic condition, fend off fierce animals or harmful animals like rat, and protect the house from being submerged in flood waters. Such traditional pile-buildings have Austronesian saddle-backed roof commonly, and are built through various techniques such as joining and mortising, without use of nails. The roof has a considerably large proportional appearance, and for this formal characteristics, the roof is symbolized as boat on occasions. The roof has dual structures or is lifted in some cases to facilitate the ventilation, and the wall is formed to maximize the ventilation. This housing types the hierarchy of foundation, housing space, and roof, which implies religious symbolism that human is above animal and God is above human. However, housing types in Southeast Asia have very different detailed form and culture, depending on the ethnic and religious characteristics. As explained above, this study examines the common aspects and diversity based on the form and culture of traditional housing of Southeast Asia and provides useful basic academic data.

주요어 : 동남아시아, 파일기초, 안장모양 지붕

Key Word : Southeast Asia, pile-foundation, saddle backed roof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캄보디아의 아세안 회원국가 10 나라를 포괄하는 동남아시아는 종교, 민족, 문화적인 측면에서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편이상 유라시아 대륙에 면해 있는 대륙부 동남아시아(Mainland Southeast Asia)와 해안 지대 또는 바다 한가운데 위치한 도서부 동남아시아(Insular 또는 Island Southeast Asia)로 나눌 수 있으며, 대륙부 동남아시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미얀마가 포함되고, 도서부 동남아시아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이 해당한다. 동남아시아는 지리적, 풍토적, 기후적 여건으로 인하여 ‘동남아시아’라고 명명할 수 있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민족적, 종교적 다양성으로 인하여 국가별로 또는 한 국가 내에서도 인종별로 다양한 주거형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독특한 지역이다.

최근 동남아시아는 아시아 지역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건축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언론보도에서는 국내 건설사들의 동남아시아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에 대한 보

도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으며, 많은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동남아시아 주거형태와 문화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동남아시아의 주거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주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의 단계적 연구로써, 이제까지 국내외 출간된 동남아시아 주거관련 문헌들의 탐색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즉 본 연구는 문헌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전통주거의 형태와 문화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정리해보며, 이를 통하여 동남아시아 각국의 주거의 공통성과 다양성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주거에 대한 개괄적 정리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동남아시아 주거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에 참고한 주요 문헌은 다음과 같다. 동남아시아의 주택의 기원 및 지역에 따른 건축방법과 건축적 특성을 도식화하여 소개하고 있는 ‘The House in South-East Asia’¹⁾, 가족관계나 거주자의 생활, 종교,

* 정희원(주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교수,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정희원(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주거환경전공 박사과정

본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과제(2009-0064763)의 일부임

1) Michael Smithes(1990), The House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관습 등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동남아시아의 전통주택에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The Living House'²⁾, 동남아시아의 주거에 대하여 여러 인류학자들의 관점으로 기술된 'The House in Southeast Asia'³⁾, 동남아시아 지역과 그 중 인도네시아의 주택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저자가 지역적 특성을 기술한 내용인 'Indonesian houses'⁴⁾, 동남아시아의 역사에 대하여 전통시대와 초기국가의 특징 및 13세기까지 각국의 역사적 여정을 다룬 '동남아시아사'⁵⁾ 등이다.

III.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특성

1. 사회·종교적 특성⁶⁾

종교적으로 볼 때 동남아시아에는 유교, 대승 불교, 소승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기독교 등 지구상의 주요 종교가 모두 존재한다. 대륙부에 위치한 베트남은 유교의 영향이 강하고, 대승불교가 보편적이다. 한편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버마는 대표적 불교국가이다. 도서부 주요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부, 브루나이 등은 이슬람교 문화권이며, 필리핀은 스페인의 영향으로 기독교 국가이다.

동남아시아는 인도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았다. 동남아시아의 전통 문화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적당히 변용되어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불교적인 것과 힌두교적인 것이 적절하게 섞인다거나 토착적인 요소와 결합되는 변용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인도의 영향에서 예외이다.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베트남이 인도 문명권으로 진입하고, 일정부분 그 문화를 흡수하여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베트남인들의 창의력이 결합되어 나타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점으로써 공동 문명권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고'(bronze drum)가 베트남 동편에서 대량 발견되고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도 발견되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나 인도와는 상관없는 독자적 문화권이다.

이 지역은 무역풍대로 무역선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베트남을 제외하고 식민시대 이전까지 국경의 개념은 거의 없었는데, 어떤 권력의 중심이 존재하면 그 권력의 힘이 미치는 범위가 국가가 되었다. 지배의 대상은 지배 영역에 존재하는 인력이지 땅이 아니었다. 또한 태국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이 서양 세력에 의한 식민지 경험을 공유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일본의 점령도 경험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역사는 각국의 영토를 명확하게 하고, '국민'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으며, 민족주의를 발전시킨 계기가 되었다.

2. 언어적 특성

동남아시아는 350종 이상의 다양한 민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각 국가의 지역적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오스트로네시안 언어(Austronesian Language Family)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적 기원을 가진 지역이다. 오스트로네시안(Austronesian)언어권은 동쪽으로는 아프리카 동쪽 마다가스카르(Madagascar), 서쪽으로는 남미의 칠레, 북쪽으로는 타이완,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와 뉴질랜드까지 포함된다. 이들 대부분은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는 섬이므로,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해상 이동의 용이함이 이러한 가설을 지지한다(Watson 1990: 11-12). 공동 문화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언어이므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문화의 공통성을 대변할 수 있다. 또한 건축은 문화의 표현이므로, 이들 지역의 건축문화의 공통성 또한 입증 가능할 수 있다.



그림 3. 오스트로네시안 언어 그룹의 영역
(Map by Val Hill, ANU, courtesy of Peter Bellwood)

III. 동남아시아 주택의 공통적 특성

1. 동남아시아 주택의 기원

이 지역의 건축적 기원의 발생과 발전, 변화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까지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어떤 지역의 건축양식이 현지의 기후적 조건에 잘 적응하고 그 지역에 흔한 재료들을 현명하게 이용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흥미롭긴 하지만 건물들의 형태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규명해주지는 못한다. 이는 열대지방의 목조건물들이 기껏해야 200년 이상 버틸 수 없으며, 이곳 건축양식의 변화와 발전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이나 그림으로 된 기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Watson 1990: 73). 기원전 600~400년과 기원후 100년 사이의 시기에 '동고'(bronze drum)에 유사한 그림을 새겨 넣은 동선문명(Dong Son Culture)이 존재하였다. 북부 베트남을 중심으로 선사시대 유적발굴을 통해 동선문명의 영향에 주택 형태의 기원을 두고 있다(Watson 1990: 18-19). 동고에 나타난 주택의 그림에서 안장모양의 지붕과 파일기초 위에 올린 바닥 구조를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Roxana Waterson(1990), The Living House, Oxford University Press

3) Stephen Sparkes and Signe Howell(2003), The House in Southeast Asia, RoutledgeCurzon

4) Reimar Schefold; Gaudenz Domenig; Peter Nas(2003), Indonesian houses, KITLV Press Leiden

5) 최병욱(2006), 동남아시아사-전통시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6) 최병욱(2006), 동남아시아사의 일부 내용을 정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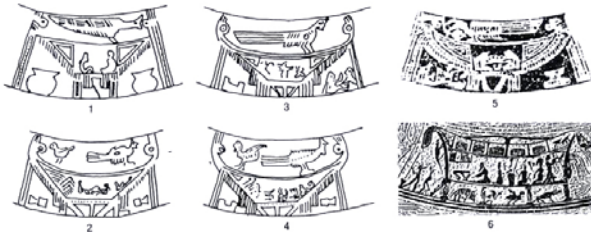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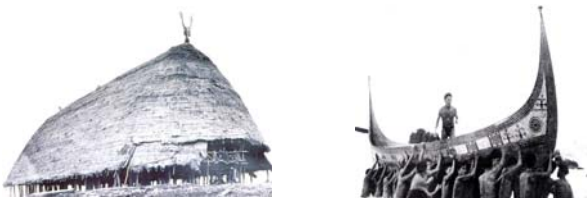


그림 4. 동고에 나타난 주택(Domenig, 1980)

2. 동남아시아 주택의 상징적 의미

동남아시아의 주택은 Reid(1988)가 ‘가벼운 집’이라고 일컬을 만큼 고상식 가옥의 효용성이 크다. 주택의 바닥은 땅으로부터 올려져 있어, 습기를 피할 수 있고 쾌적하고 위생적이며 사나운 짐승이나 쥐 같은 해로운 동물로부터 보호하고, 범람으로부터 대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붕은 안장 모양이 공통적인 형태인데, 집합과 장부이음 등의 다양한 기술로 못을 사용하지 않고,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Watson 1990: 27-42). 지붕은 상대적으로 매우 큰 비례형태를 차지하고 있고 형태적 특징으로 배(boat)로 상징되기도 한다. 형태적으로는 일반적인 배를 뒤집어 놓은 것과 유사한 외향과 전통적인 제례에 사용하는 배의 외향을 따른 안장모양의 두 가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A. 배를 뒤집어놓은 형태의 지붕 B. 안장모양 제례용 배

그림 5. 지붕형태의 모티브(Watson, 1990, pp.22,37)

지붕은 건물의 미적표현과 거주자의 지위를 반영하기도 한다. 지붕은 때로는 이중구조로 되어있거나, 들려져 있어 환기에 원활하며, 벽체의 형태도 최대한 통풍이 원활한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주거형태는 하부에서부터 기초, 거주 공간, 지붕이라는 위계를 만들어내고, 이는 동물, 그 위에 인간, 그 위에 신이 산다는 종교적 상징성을 내포한다.



그림 6. 동남아시아 주택 유형의 위계(Bambung Rumah=roof, Badan Rumah=body, Bawah Rumah= underneath)

하지만 이러한 동남아시아 주거형태의 공통성은 민족적, 종교적 특성에 따라 그 세부 형태와 문화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다른 지역과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기초와 지붕의 형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기초는 대륙부와 도서부 그리고 마이크로네시아(Micronesia)와 멜라네시아(Melanesia)에서는 파일기초(pile-foundation)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다수의 사례에서 파일건축(pile-built) 방식이 주를 이룬다. 예외적으로 발리(Bali)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영향을 받은 지역의 경우 대지건축(ground-built) 방식이 적용된 사례와 일부 북부 타일랜드의 고산지대에서만 중국의 영향을 받아 흙기단 위에 집을 올리는 경우, 원목을 사각형 또는 교차한 위에 집을 올리는 형태도 이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기초 위에 주택을 얹어 마찬가지로 대지에 주택에 바로 지어진 경우는 아니다. 가장 많은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형태인 고상식(pile-building)은 동남아시아의 기후적인 측면으로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고상식이 열대기후인 이 지역에 뚜렷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Watson 1990: 1-3).

다른 지역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동남아시아 주택의 또 다른 특징으로 안장모양지붕(saddle-backed roof)과 여러 층으로 된 지붕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는 배(boat)로 상징되기도 한다. 안장형 지붕은 용마루 끝부분을 올려 박공의 끝이 밖을 향하게 경사를 가지고 있으며 과장되게 뾰족한 박공의 형태를 보이며, 마치 버팔로의 뿔처럼 치솟아 있다. 지붕의 양끝이 과장되게 튀어나오고 솟아오른 형태의 지붕은 독립적인 기둥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지지되기도 한다. 지붕의 끝부분은 뿔이 있는 버팔로의 머리를 엮거나 나가(naga) 또는 거대한 물뱀의 형태로 지붕의 나무를 조각하여 얹어 계층 또는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다.

IV. 동남아시아 전통주택의 지역적 특성

1. 대륙부 동남아시아의 전통주택7)

태국의 주택은 사용의 구분이 명확한 공간을 가지며, 공공기능의 방은 복도에 의해서 침실과 분리된다. 파일이 지붕까지 연장되어 벽을 지지하며 공간을 구획하는 기능을 하였다. 집의 크기에 따라 지붕면과 크기가 달라지며, 작은 지붕면의 양쪽에 환기구가 있다. 수직, 수평으로 흠을 판 판재로 된 벽이 개성을 부여한다.

캄보디아는 파일기초에 올린 건물로 지붕은 보구조를 사용하지 않았고 두 가지 양식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공간이 사각형 방으로 구성된 것으로, 규모가 250m² 정도의 높이가 다른 두 개의 바닥으로 된 것도 있었다. 지붕은 대체로 3면으로 구성되며, 벽은 쪼갠 대나무로 매트르 만들었다. 다른 양식은 주거공간이 여러 개의 실로 구분되며, 주요한 실의 높이가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건물 중앙에 있는 지붕은 2개에서 4개까지의 지붕면을 가지고 있으며 경사가 완만하다. 외부공간에 작은 테라스가 현관의 기능을 한다.

미얀마지역의 전통주택은 매우 사치스러워서 축조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고, 12세기까지의 주택은 동선양식으

7) 지면의 한계로 대륙부 동남아시아 중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의 전통 주택에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로, 이후부터는 외관만 동선양식을 따르고 인도의 기술로 대체되었다. 보를 사용하지 않고 지붕을 바로 기둥위에 올리는 형태를 취했다. 미얀마의 만달레이지역은 과일위에 플랫폼을 얹고 플랫폼 아래는 소의 축사로 사용하고 플랫폼위에 지어진 건물은 침실, 거실, 부엌, 창고 등 특정기능으로 사용하였다. 공간은 크게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지붕은 두 개가 평행한 형태로 되어 지붕의 홈이 빗물 배수의 기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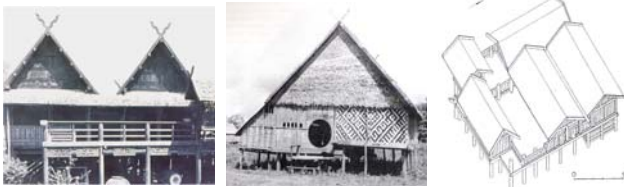


그림 8. 태국(a), 캄보디아(b), 미얀마(c)의 전통주택

2. 도서부 동남아시아의 전통주택8)

인도네시아는 Minangkabau, Nias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낭카바우(Minangkabau) 주택은 사각형 평면에 높이가 다른 세 개의 바닥으로 구성되었고 지붕은 다섯 개로 다른 지붕에 각각 들어가도록 구성되어 있다. 파일은 내부로 길게 하여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생활공간을 더욱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기둥에 의해 내부공간이 구획되었다. 파티션은 기둥에 고정되었지만, 제레와 같은 때에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고 공간을 변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택은 사각형 패널에 꽃을 모티브로 한 장식을 하였는데 이는 바닥보의 접합부를 숨기는데 활용되었다.

북쪽 니아스(Nias)섬의 주택은 타원형 평면과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덮인 테라스를 가졌다. 중앙 니아스의 경우 사각형의 평면에 베란다가 측면에 위치한다. 남쪽의 경우 약 4~12m의 폭이 좁은 사각형 평면을 과일위에 올리고 두 개의 큰 방과 부엌과 같은 기능을 하는 폭이 좁은 거실의 세부분으로 나뉘며, 노변은 중앙공간에 자리하고 부엌은 때때로 밖으로 이동되기도 한다. 지붕은 집의 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으로 벽 위에 매우 복잡한 보구조 위에 6~8m 높이로 구성된다. 작은 각목이 목재의 중간틀로 부재들을 고정시키고 빛과 공기를 들어오게 한다. 주택은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으로 구분된다.

말레이(Malaysia) 주택의 평면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접대의 기능을 하는 베란다와 두 개의 침실, 약간 높은 레벨의 부엌이다. 베란다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곳은 부엌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주택은 재료와 기술에 의해 평면과 지붕은 달라질 수 있다. 벽은 쪼갠 대나무 매트를 사용하고 베란다부분은 지붕을 덮지 않는다.

8) 지면의 한계로 도서부 동남아시아 중 인도네시아 중 미낭카바우, 니아스와 말레이시아에 한정하여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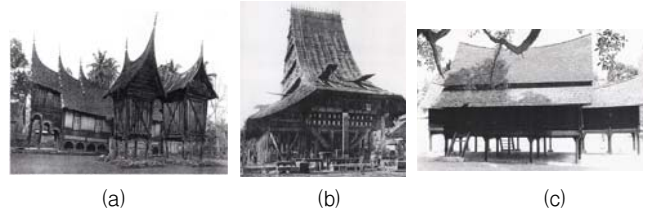


그림 10. 미낭카바우(a), 니아스(b), 말레이시아(c)의 전통주택

V. 결론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된 동남아시아 전통주거의 형태와 문화에 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적으로 동남아시아는 복잡한 문화적 양상을 가지고 있다. 지구상의 주요 종교가 모두 존재하는 다양성을 가진 지역이며, 특히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또한, 언어적으로 오스트로네시안 언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다수의 지역에서 동고가 발견되는 등의 공통점을 가진 문화권이다.

동남아시아 전통주거 형태는 다음의 여섯 가지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거형태는 기초, 거주공간, 지붕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아래에서부터 동물, 인간, 신이 산다는 종교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바닥 높이가 다양한 사례가 등장하며 이는 주택 내에서 위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셋째, 대륙부의 지붕은 박공형이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박공지붕을 갖는 사례가 발견된다. 도서부는 곡선을 사용하여 지붕의 상징성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신분이나 건물의 용도를 반영하기도 하며 안장모양의 형태적 특징을 보인다.

넷째, 공통적으로 과일기초를 사용한 고상식 주택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못을 사용하지 않고 결합하고 장부이음하는 구조이다.

여섯째, 대부분의 벽이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칸막이 용도라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참고문헌

1. 최병욱(2006), 동남아시아사-전통시대, 대한고과서주식회사
2. Michael Smithes(1990), The House in South-East Asia, Oxford University Press
3. Reimar Schefold; Gaudenz Domenig; Peter Nas(2003), Indonesian houses, KITLV Press Leiden
4. Roxana Waterson(1990), The Living House, Oxford University Press
5. Stephen Sparkes and Signe Howell(2003), The House in Southeast Asia, RoutledgeCurzon
6. 권태호; 박순관(2000), 말레이시아 반도 지역 전통주거건축의 일반적 형식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 2권 3호, pp25~36
7. 주서령; 고영은(2008), 말레이시아 근대주거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51~155